

# '25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 1. 회의 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5-10	10.15	회의실	11/12	4	1	16	○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김동진·박양우·박종수·반수경·설제학·양지현·유한별·이경주·이미진·정인영·정희(11명)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원승연(경영본부장), 김민호(콘텐츠본부장), 김철원(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10	2	0	0	12	0	12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2	0	0	12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역할 필요 조명	<시사용광로 대한민국의 길> 1부 지역과 미래(10.23), <지역생존 시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 해!>(10.28, 11.4), <국가균형성장 질문 있습니다>(11.20) 등 방송 조치	'25.10
"	“공무원 100명 동원 ‘행정대집행’..광주 불법 파크골프장 진입로 강제 철거” 보도, 갈등의 구조나 배경, 제도 허점 등 부족 아쉬움	보도 책임자와 프로그램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시사용광로>, 진행자가 시간에 대한 언급 많아 시청자에게 불안함을 줌	보도 책임자와 프로그램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시사용광로>,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 구축과제 해결, 광주아트페어 운영 평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위해 필요한 전략 등 논의 부족	보도 책임자와 프로그램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현안을 점검하는 다양한 기회를 가져주길 바람	<뉴스투데이> ‘광주 공연예술계 성평등 수준 매우 낮아’(11.6), ACC 10주년 ‘문화중심도시 성과와 과제’ 포럼(11.7) 등 방송 조치	"
"	KTX·SRT 통합 논의, 증편 등 지역 교통 문제 관심 바람	<뉴스데스크> 광주시, 17일부터 호남선 KTX 2편 증편 운행(11.9), “호남 하늘길 열어달라”(11.10), 민주당 광주시당 “KTX 호남선 증편 환영..더 늘려야”(11.10), <뉴스투데이> 경전선 광주-순천 비전철화..디젤차 운행(11.5) 등 방송 조치	"
"	개인정보의 유출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 바람	<뉴스데스크> 민원인 개인정보 누가 쫓나(10.27), 민원인 정보 유출은 남구의회 직원(10.28) 등 방송 조치	"
"	<시사용광로>, RE100 산단 유치 관련해 지역 실무와 현장 중심의 목소리 부족 아쉬움	<뉴스데스크> 소득 증대·RE100 실현(11.5) 등 방송 및 보도 책임자와 프로그램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광주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K-문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심 바람	<뉴스데스크> 문화와 예술로 나누고 연대하고(10.25), <뉴스투데이> 5.18사적지 옛 광주적십자병원 활용 방안 의견 수렴(11.11), 양림동 출신 정추 음악가 평전 발간(11.11) 등 방송 조치	"
"	AI 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해 적극 관심	<뉴스투데이> 비상 회의하고, 국회 찾아가고(10.23), '기대와 우려 교차'··'철저한 준비' 주문(11.5), <5시 뉴스> "광주·전남 강정 사례 상생형 시벨트 구축해야"(10.27), <시사용광로>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전, 광주시 준비는?(10.16) 등 방송 조치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 전달 바람	편성 책임자와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빛나는 나의 도시> 잘 먹고 잘사는 법 코너, 쉽고 일상적인 어휘와 설명 필요	편성 책임자와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합계		1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역할 필요 조명	지역 의제를 적극 제기하고 보도 해나가겠음	○		
"	“공무원 100명 동원 ‘행정대집행’··광주 불법 파크골프장 진입로 강제 철거” 보도, 갈등의 구조나 배경, 제도 허점 등 부족 아쉬움	짧은 뉴스 시간의 한계가 있지만 사건·사고의 맥락과 관점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시사용광로>, 진행자가 시간에 대한 언급 많아 시청자에게 불안함을 줌	진행자가 여유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하겠음	○		
"	<시사용광로>,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 구축과제 해결, 광주아트페어 운영 평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위해 필요한 전략 등 논의 부족	광주비엔날레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발굴해 보도 하겠음	○		
"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현안을 점검하는 다양한 기회를 가져주길 바람	문화중심도시답게 다양하고 심도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들이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KTX·SRT 통합 논의, 증편 등 지역 교통 문제 관심 바람	호남고속철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심을 두고 보도하겠음. 교통망 확충의 뉴스는 최우선 보도 가치를 두고 알려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겠음	○		
"	개인정보의 유출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 바람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대인만큼 관계기관들이 각성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보도해나가겠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	<시사용광로>, RE100 산단 유치 관련해 지역 실무와 현장 중심의 목소리 부족 아쉬움	뉴스뿐만 아니라 토론프로그램 등을 통해 RE100 산단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담겠음	○		
"	광주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K-문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심 바람	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콘텐츠를 갖추도록 관심을 두고 보도하겠음	○		
"	AI 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해 적극 관심	정부가 공모하는 각종 AI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도해나가겠음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 전달 바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		
"	<빛나는 나의 도시> 잘 먹고 잘 사는 법 코너, 쉽고 일상적인 어휘와 설명 필요	다양한 사례는 물론 시청자가 법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의하겠음	○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5년 10월)

일시	2025년 10월 15일(목) 17시	장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	김동진·박양우·박종수·반수경·설제학·양지현·유한별·이경주·이미진·정인영·정희 위원(11명)	
	회사	김낙곤 사장, 원승연 경영본부장,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김철원 보도본부장(4명)	

## ■ 회의 내용

- 박양우 위원장 : -바쁘신 가운데 감사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 이번에 노벨상 중에서 가장 관심 있었던 게 평화상이었을 것이다. 평화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세상에 평화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하고, 캄보디아에서는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났다. 경주에서는 에이펙이 열리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위상뿐만 아니라 실질적 이익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월 8일 창사 기념일이었다. 연휴 기간에 각 부서에서는 뉴스도 만들고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10월 11일 무등산권마라톤대회, 10월 4일에는 명명파크 페스티벌이 열렸다. 모두 열심히 일했고, 잘 진행했다. 연휴에 로컬 프로그램을 잘 편성해 고향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노력했으며, 뉴스에서는 시군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취재했다. 지난번 여러 가지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 사장으로서 간부들에게 내용을 잘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당부했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더욱 변화하고 시청자에게 다가갈 것이다.
- 박양우 위원장 : -업무보고를 해주길 바란다.
-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 -<광주MBC 보다>에서는 시사 토크쇼 '신지동철' 코너를 론칭했다. 9월29일 국회의원 주철현 편, 10월13일 국회의원 정준호 편을 방송했다.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그동안 의회의 인물 이명노, 이귀순 의원이 출연했고, 잘 먹고 잘사는 법에 유한별 변호사, 반려견 순찰대, 흑돼지농장, 말바우 시장 추석맞이 등을 방송했다. 라디오에서는 래퍼에서 지원받은 지역 MBC 8개 사 공동제작 <지역생존 AI 프로젝트-우리 고향, 부탁해!> 11부를 방송했다. 주요 계획으로 10월25일 보성 열선루축제 녹화가 있으며, <더 프레지던트 토크쇼> 윤이상 특집, 지방자치 30주년 특집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타운홀미팅, 11월22일 김치의 날에 개최하는 <대한민국 김치대전> 등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김치대전>은 지역 MBC 계열사를 통해 녹화 방송할 예정이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추석 연속보도 '나의 살던 고향은'을 주제로 기획보도 10편을 방송했다. 자치단체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추진 상황을 취재했다. 얼마나 모았고 어디에 쓰나 분석하고, 고향사랑기부 모금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기자 AI 클로닝 사업에 참여한다. 서울 MBC가 추진 중인 기자 목소리 복제 시범사업이다. 재난방송이나 원격 취재 시 학습시켜놓은 기자의 목소리를 활용해 방송하는 것이다. 6개월 정도 시범사업 후 계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시사용광로>에서는 'RE100 산단 유치, 전략과 과제는?', '문화수도 광주, 어디 서 있나?', 'KTX 예매 전쟁, 언제쯤 끝나려나' 등을 주제로 방송하며 지역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주요 계획으로 광주MBC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 중이다. 가독성이 좋고, 우리 콘텐츠를 잘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10월 말 개편 목표인데 뉴스의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창사 61주년 특집 토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길> 대담 3부작은 10월 30일, 11월7일, 14일 3회 방송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이 출연한다. 정당의 분포 등 제작진과 협의한 결과 <시사용광로> 특집으로 성격을 변화시키기로 함. 지난달 시청자위원회 때 나온 의견을 프로그램의 내용에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창사 61주년 특집기획 <김치 세계화 어디까지 왔나>도 준비 중이다. 11월22일 '김치의 날'을 앞두고 11월20일 <시사용광로> 시간에 방송할 예정인데, K-푸드 세계화와 남도김치 세계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

- 박양우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 업무보고 사항에 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제시 사항을 말씀해달라.
- 김동진 위원 :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사업장 15곳 적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광주시가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 249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15곳을 적발하고, 그중 8곳은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행정 대응 계획을 전했다는 내용이였다. 이 보도는 시민 건강과 행정 책임성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끄집어냈고, 지역 환경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다만 위반 사실과 행정 처분 중심으로 전개되는 데 그쳐 ‘왜 이러한 위반이 지속됐는가’ 또는 ‘유사 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은 부족한 인상이 있다. 유사 점검 사례를 비교하거나 과거 조치의 한계를 되짚어 보는 보도를 추가한다면, 단순한 위반 적발을 넘어 제도적 개선까지 시청자가 같이 생각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보도로, “공무원 100명 동원 ‘행정대집행’·광주 불법 파크골프장 진입로 강제 철거”에서는 금당산 일대 무단 포장도로를 강제 철거한 사실과 행정 행위의 실황이 상세히 전달되었다는 점이 돋보인다. 해당 보도는 현장성을 살리고 긴장감 있는 장면을 전달한 점이 강점이다. 그러나 보도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반박 주장을 짧게 전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갈등의 구조나 배경 즉, 왜 허가 없이 포장하게 되었는가, 제도 허점은 없는가 등에 대한 해석이 다소 약하다. 만약 이 보도 후속편으로 토지 이용 규제, 지자체의 실효적 감시 체계, 주민과 행정 간 갈등 조정 사례 등을 차례로 조명한다면 균형성과 깊이를 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생활 콘텐츠 측면에서는, 지역 전통문화나 지역 축제 소개 프로그램이 방송되긴 하지만 최근 보도나 콘텐츠에서 대학생, 청년 예술인, 지역 창업가 등 변화의 주체가 된 인물 중심의 스토리가 눈에 띄게 적었다. 만약 광주MBC가 지역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개인이나 그룹을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조명한다면, 문화 콘텐츠는 단순한 ‘소개’에서 ‘공감과 변화의 촉매’로 진화할 수 있다.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 이때 방송은 더욱 생동감 있고 시민에게 가까워질 것이다.
- 박양우 위원장 : -광주문화방송의 프로그램들이 다 유익하지만 <빛나는 나의 도시>는 지역방송 본연의 존재 이유를 견지해주는 것은 물론, 시청자들에게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서 항상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이다. <당신의 사진첩>은 볼 때마다 어릴 때의 추억을 떠오르게 해줘서 늘 흐뭇한 마음으로 시청한다. 이번 주제 ‘추석’ 편도 다음날부터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 장기 자랑’부터 시작해 ‘파김치와 열무김치’, ‘용돈 선물’, 그리고 ‘차례상’에 이르기까지 추석에 대한 기억을 새록새록 되살려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냄새나는 훈훈한 영상과 사진을 볼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다. 사진은 모두 아마추어 작품처럼 보였지만 그게 오히려 촬영자의 소박한 진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아가 앞으로의 삶에 소소한 기쁨과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나침반 같은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특히 개인적으로 ‘아이들 장기자랑’을 보면서 명절 가족 모임의 좋은 모델을 보는 것 같아 유익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지속되거나 더 발전된 형태로 이어져 가면 좋겠다. <전통시장 말바우시장> 편도 재미있게 보았다. 추석맛이를 앞둔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추석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리포터의 좀 과장되게 보이는 역할이 오히려 진행의 생동감을 높여주어서 화면에서 잠시도 눈을 돌리지 못하게 했다. 프로그램 도중에 제공된 환급정보 등 시청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준 것도 좋았다. 다만, 음식을 시식하고 상인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도중에 음식 가격 정보도 요령껏 알려 주면 더 유익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추석 연휴 기간에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이벤트들에 대한 정보 안내도 유익했다. <빛나는 나의 도시>는 여러모로 재미있고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더 잘 다듬어서 더욱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 전달을 계속해주길 바란다.
- 반수경 위원 : -<시사용광로> 문화수도 광주로서의 역량은? 편에는 지역 문화기획자 이한호, 광주시립미술관 관장 윤익, 미술작가 하루K 세 분의 출연자들을 모시고 주제별 내용을 토의했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시아문화전당 소개와 역할과 기능 등 시작 단계에서 전반적인 소개가 필요한데 아쉬웠다. 아시아문화전당과 비엔날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진행 과정을 듣는 동안 아시아문화전당과 비엔날레를 동시에 운운하는 것은 비교하는 건지 아니면 공통분모의 내용을 말하려 하는 것인지 제작의 분명한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 광주비엔날레 30주년과 디자인비엔날레는 축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던데 축제가 아니면 어떤 특성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 구축과제 해결, 광주아

트페어 운영 평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위해 필요한 전략, 문화수도 광주로 자리매김 전략, 3대 국립문화시설 유치 등 각각의 질문에 광주만의 성격이 묻어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내용 이외에는 별다른 해답을 논하지 못함으로써 방송을 보는 시청자로서는 속 시원한 내용을 받지 못했다. 진행자가 시간에 대한 언급이 너무 많아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하지 못하고 쫓기듯 불안함을 주었다.

○ 설계학 위원 : -9월25일 방송된 <시사용광로>는 광주 문화예술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지적해 준 프로그램이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훌륭한 인프라를 통해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문화와 연계된 발전이 미미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역문화 생태계 발전을 위한 민·관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에도 깊이 공감한다. 비엔날레와 아트페어에 관한 전문가들의 문제점 지적과 그에 따른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역시 합리적인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광주가 지닌 문화적 정체성을 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유치에 관한 내용도 인상 깊었다. ‘문화예술’이라는 주제가 다소 광범위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키워드가 제시되어 심도 있는 내용이 부족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현안을 점검하는 다양한 기회를 가져주길 바란다.

○ 양지현 위원 : -<시사용광로>에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KTX 예매 전쟁에 대해 방송했다. 실제로 수도권 출장으로 열차 이용을 많이 하면서 불편함을 겪었던 터라 예매 전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 닿았다. 왜 이렇게 예매하기가 힘든지 사실 다른 지역 기차 예매 상황도 비슷할 거라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경부선과 비교 분석을 통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니 호남선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러한 불이익이 빨리 개선되길 희망한다. 더불어 광주공항에서 김포공항의 항공편이 많이 축소된 가운데 더욱더 KTX, SRT 열차 증편이 시급하다고 본다. 다양하게 제시된 대안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리며, KTX 증편 등 지역 교통 문제에 관해 계속 보도를 바란다. 9월 26일 <뉴스투데이>에서는 “치솟는 쌀값 인상에도 웃지 못하는 농민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농민들의 처지에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각으로 보도 되는 뉴스를 기대한다.

○ 유한별 위원 : -광주MBC 단독 ‘신용카드 수백만 원 무단 결제됐는데’에서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심과 우려,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유출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법적 권리를 가진다. 관련 금융기관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까지 발생시켰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지 몇 개월 만에 금융기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보인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나 규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데 있어 광주MBC가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광주 송정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가 하루 평균 만여 명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으로 인해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8년 이후 증편이 가능하다는 견해인데 KTX 하루 운행 횟수는 경부선 115회, 호남선은 55회로 권역별 인구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공급 좌석의 불균형이 심각하고 주말에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다. 2028년까지 이 같은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호남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무책임한 회피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반복되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대책 등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광주MBC가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 이경주 위원 : -9월18일 방영된 <시사용광로> 프로그램은 ‘RE100 산업단지 유치,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광주·전남 등 서남권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룬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 특히 광주·전남이 역할을 분담하고 하나의 RE100 산업벨트를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은 깊이 공감했다. 또한, 이번 방송을 통하여 서남권의 에너지 자립 잠재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며 이와 더불어 광주가 보유한 ICT·AI·콘텐츠 산업 역량이 결합한다면 RE100 산단은 단순한 에너지 인프라가 아닌 산업혁신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다만, 지역 실무자, 기업 담당자, 주민·시민 대표 관점이 더 강화되었다면,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적 애로를 더 깊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 결론적으로 이번 방송은 RE100 산단 유치를 둘러싼 주요 논점을 공론장으로 끌어낸 의미 있는 기획이었으며 다만, 중앙의 시각만이 아니라 지역 실무와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더 담아내면 더욱 깊이 있는 토론으로 확장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11월22일 '김치의 날'을 앞두고, 11월20일 방영 예정인 창사 61주년 특집기획 <김치 세계화 어디까지 왔나>는 매우 시의적절한 기획이라 생각한다. K-콘텐츠와 K-푸드가 세계적 주목을 받는 시점에서, '남도김치'의 세계화 가능성을 지역 방송사가 심층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은 광주의 문화적 정체성과 산업적 잠재력을 동시에 부각할 좋은 기회다. 광주MBC가 지역의 산업·문화 이슈를 시사와 산업, 시민의 삶이라는 세 축으로 연결하며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는 주제 중심의 기획을 통해 시청자와 더 긴밀히 소통하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한다.

- 이미지 위원 : -<빛나는 나의 도시> '좌석 전쟁, 호남선 KTX 증편 시급' 편에 관한 의견이다. 광주 송정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가 하루 평균 만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판단된다. KTX 하루 운행 횟수는 경부선 115회, 호남선은 55회로 권역별 인구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공급 좌석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주말 공급 좌석은 경부선이 11만 8천여 석, 호남선은 3만 9천여 석으로 3배 차이가 난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오송 구간의 고속 선로 확장 공사가 끝나는 2028년 이후 증편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그 전에라도 수년째 반복되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광주MBC가 애써 주시기를 기대한다.

-<시사용광로> '문화수도 광주, 어디 서 있나'에 관한 의견이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K-문화 열풍 속 광주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 시설과 콘텐츠가 충분한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문화강국 정책 흐름 속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주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동안 광주 문화수도 사업은 시설 확충이나 교통, 생활 인프라 개선, 지역 균형발전 이바지한 바가 크지만, K-문화 열풍 속에 이에 대한 흐름을 따라잡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보인다. 아무쪼록 문화수도 광주로서의 과거 위상을 되찾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합심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광주가 K-문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광주MBC가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 정인영 위원 : -<시사용광로> 10월2일 방송은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짚어주신 점이 인상 깊었다. 타 노선과 달리 주말 증편율이 0%에 머무르는 점, 좌석 수가 많은 KTX-1 열차의 배정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 등 구체적인 수치는 단순한 불편의 차원을 넘어 구조적인 불균형의 문제임을 시청자들이 명확히 인지하게 하였다. 또한, 장기적 해결책으로 제시된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이 2028년에야 완공된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전까지 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에 대한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모색으로 논의를 이끌어간 점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KTX·SRT 운영 통합을 통한 효율성 증대, 중련열차 편성 확대, 수요 응답형 셔틀 열차 도입 등 전문가와 국회의원 패널들이 제시한 다각적인 해법은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었다. 한 가지 제언을 드린다면, 이번 방송에서 제기된 문제와 대안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보도를 부탁드린다.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의 공정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KTX·SRT 통합 논의의 진행 상황 등을 추적 보도함으로써 지역민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 정희 위원 : -9월24일 <빛나는 나의 도시> 의회의 인물은 단순히 의정 관련 내용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유렵답사를 연결한 점이 돋보였다고 생각한다. 10월2일 말바우시장 추석맞이 방송에서는 생전에 어머니가 자주 갔던 말바우시장이 나와 옛 생각이 났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 중임을 알리는 기회도 되었다.

-9월25일 <시사용광로>에서 언급한 민주, 인권, 평화라는 공유된 기억과 강한 시민 연대가 있다는 내용은 광주의 상징이라 생각한다. 문화수도와 연관 지어 미래의 광주가 추구하는 AI와 민주, 인권, 평화가 연계된 내용이 기획되면 좋겠다. 11월22일 김치의 날 행사에서도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시도되고, 전자정부 화재와 관련하여 광주에 있는 정부의 전자정부 복구 센터를 홍보한다면 광주에 AI 컴퓨팅센터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I 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해 적극 관심을 바란다.

- 박양우 위원장 : -기타 의견으로 시청자 의견이 있다. 10월 1일 방송한 <빛나는 나의 도시> 잘 먹고 잘사는 법(法) 코너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과 관련한 변호사의 전문가적인 조언이 있었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선택한 용어들조차 다소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좀 더 쉽고 일상적인 어휘와 설명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유한별 위원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지만 시청자에게는 아직 생소하고 어려운 말이 있는 것 같다. 시청자의 이해가 쉽도록 잘 풀어서 설명해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제작진과 출연자가 이 점을 참고해 준비해주길 바란다.
- 김낙곤 사장 ; -정회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이 고민이다. 광주가 AI 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실제 유치가 된다면 우리 지역에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 방송 시청자와 지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공영방송으로서 AI를 미래 비전으로 생각하는 도시의 방향에 맞춰 신년 특집 등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AI와 관련 대기획, K푸드 세계화를 위한 기획, 더불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공항 문제나 시도통합 문제 등 의견을 모으고 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 박양우 위원장 : -광주MBC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김치대전>이 국내 최고 위상을 이끌어 가길 바란다. 김치를 어려운 분들에게 다 나누는 뜻깊은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해주길 바란다. 이상으로 10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끝.